

이기는 삶

갑질

요즘 어느 대기업 경영자 일가족이 저지른 갑질 논란이 뉴스를 타고 번지면서 그 여파로 인한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갑질', '갑질' 하는데 도대체 갑질이란 무엇인가? 갑질이란, 갑을 관계의 '갑'에 어떤 행동을 뜻하는 접미사인 '질'을 붙여 만든 말로,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고객의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그리고 보면 갑질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지위나 권력 또는 재력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힘들게 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등 아주 좋지 못한 행위를 이르는 말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도덕적 사고로 자신의 행위를 제어하지 못할 경우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공공의 이익에 큰 누를 끼칠 수도 있게 된다.

필자는 얼마 전까지 새벽 2시에 일

어나 새벽 6시까지 우유 배달을 하였다. 어느 5층 연립 아파트 단지가 앞으 스이기 때문에 새벽 3시 경에 들어가게 되었다. 아파트로 진입하려고 하는데 경비가 앞을 막는다. 오토바이 소리가 시끄러우니 아파트 입구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걸어서 들어가라는 것이다. 새벽 3시에 오토바이 소리가 나면 특히 여름에는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 때문에 시끄러워 잠을 깨게 된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 배달을 하는 입장에서는 걸어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마음으로는 꽤히 내키지 않는다. 그러나 어쩌랴! 아파트 입구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걸어서 각 동을 돌며 고객 집에 배달을 했다.

나 하나 편하자고 쉽게 내뱉는 말 상대방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갑질이 될 수 있어

다음날 7동 5층 고객의 집에 배달을 하고 내려오니 경비가 서있는 것이다. 그리고는 3층의 통장 집의 개가 사

람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있는 바람에 통장이 잠을 깨기 때문에 6시 이후에 오라는 것이다. 한 집 때문에 나중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시간도 더 걸리고 배달하는 입장에서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경비와 입씨름을 했다. 그리하여 우유를 경비실에 맡기면 경비들이 순찰 돌 때 5층 고객 집에 대신 갖다 놓기로 하였다. 그런데 일주일 쯤 지났을까 다른 경비들이 귀찮아 여기니 6시 이후에 직접 배달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달을 마친 후 맨 마지막에 7동 5층 고객 집에 배달을 해야만 했다.

개가 짖기 때문에 6시 이후에 오라는 말은 어떻게 들으면 사람이 개만도 못한 신세로 전락되는 순간이다. 이것이 소위 나 하나 편하자고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행하는 갑질이다. 또한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배달하는



사람들에게 엘리베이터의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 계단으로 걸어서 다니라고 갑질을 한다. 어떤 이는 성경책을 옆에 딱하니 끼고 그런 말을 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 씩씩이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합심한 일이다.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고 포용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계층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나 하나 편하자고 쉽게 내뱉는 나의 말이 칼날이 되어 상대방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갑질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자.\*

### 고조선 백성들이 이스라엘 선민이라는 사실을 감췄듯이 노아의 방주 또한 완성되기까지 숨겼다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창6:9)는 당대에 의인(히11:7)이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480세였을 때에, 노아 속에 계신 하나님이 노아에게 앞으로 있을 대홍수를 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는 '땅 위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혹시나 구세주 의인이 출현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물로써 멸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마귀에 의해서 인간들의 마음이 죄악으로 더러워지는 속도를 감안하시어 앞으로 대홍수가 120년 만에 발생할 것을 정확하게 아셨던 것입니다. 그럼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멸절시키려는 마귀와 어떻게 싸웠는지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마귀의 계획대로 인류가 대홍수로 익사(溺死)하게 될 것을 아시고 그 다가오는 멸망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 노아 방주는 대홍수 직전 5년 동안 조립에 의해 건조된 배다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볼 때 대홍수 이전의 문명이 대홍수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졌다고 보기에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원 받은 노아 여덟 식구에 의해서 대홍수 이전의 문명 가

운데 극히 일부분만 전수되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 480세에서 600세까지 120년은 대홍수를 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노아의 나이 480세에서 500세까지 20년간은 "지상의 사람들이여, 술에 취해 강포를 행하지 말며 정욕에 불타서 시집 장가는 패역한 행위를 삼가라"하고 계몽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지상의 사람들이 노아의 계몽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대를 잇기 위해 당대에 의인 노아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노아 500세부터 600세까지 약 100년 동안 본격적으로 산중턱에서 방주를 짓게 되었습니다.

방주는 배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는 방식을 택한 것이 아니고 100년 가운데 처음 95년간은 방주의 설계도면에 의거하여 정밀하게 나무를 잘라 보관하는 형식을 취했고, 그리



대런 아로노프스키 (Darren Aronofsky) 감독의 영화 《노아》에서 방주를 짓는 장면

고 나머지 대홍수 발생 직전의 5년간은 지금까지 준비한 나무를 운반하여 조립하는 방식으로 못질을 하며 동시에 안팎으로 역적을 칠해서 물이 새지 않게 했습니다.

#### 방주 건조에 노아의 아버지 라멕과 할아버지 무드셀라까지 참여하였다

방주 건조에 사용될 목재와 못 그리고 연장이 다 갖추어졌을 때,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777세 일기로 운명하였습니다. 라멕이 죽자 라멕에 속한 사람들이 라멕의 장례식에 참석하고서는 더 이상 산중턱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95년간 준비된 목재로 조립할 인부를 구하기 위해서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를 주장 하였습니다. 이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964세였습니다. 무드셀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산중턱으로 보내 노아의 지시를 받아 방주조립에 힘썼습니다.

최근 백여 년 간 하나님의 대적 마귀는 노아의 행적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는데, 잣나무를 베어다가 날뺏지 모양으로 제작하여 여러 곳에 쌓아서 저장하는 모습을 보고 나무로 어머어마한 크집을 짓는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런데 무드셀라가 보낸 인부들이

###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Where is the true religion?  
참 종교는 어디에 있는가?

종교는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한다. 많은 철학자들은 인간의 마음이 무엇인가, 육신은 무엇인가, 우리가 사는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는 죽음이 후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왔다.

▶ Religion exists in man's mind. Many philosophers have pondered about what the mind is, what the body is, the reason why we live and where we shall go after death.

그러나 아무도 정확한 답을 얻지 못했고, 아무도 인간이 정말로 누구인지 알수가 없었다. 만약 인간 그 자체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종교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다. 인간은 많은 면에서 종교의 가치와 필요성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연구해왔다. 그러나 아무도 종교의 의미를 몰랐다.

▶ But no one has got the correct answer. Nobody knows who man really is. It is nonsense to talk about religion, if one does not know man himself. Man has studied the real meaning, the worth and the necessity of religion in many ways. But no one knows the meaning of religion.

종교의 끝은 진리를 구현함에 있다. 진리가 나타나면 우리는 참 종교를 찾을 수 있다. 교회를 짓는 것이 종교가 아니다. 진정한 종교는 오직 영생의 마음이며 죽음의 마음이 아니다. 진정한 종교는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될 수 있어야만 한다.

▶ The end of religion is to realize the truth. After the truth appears, we can find true religion. Building a church cannot make a religion. The true religion is only the mind of immortality, not the mind of death. True religion should be able to achieve the Kingdom of God.

그러므로 진정한 종교는 오직 영생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곳이다.

▶ Therefore, the genuine religion is only the place to teach the way of immortality.\*

by Alice

노아의 지시를 받아 예비해둔 나무로 짜 맞추어 조립하여 만드는 형태가 이상하게 여겨졌지만, 무지몽매한 마귀는 그것이 물에 뜨는 배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 이래로 인간들이 그렇게 큰 배를 만들어 타고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아가 600세 이르러 방주가 완성되었고 또한 그 시점에 마귀가 대홍수를 일으켜 인류를 말살하려고 계획해왔던 것인데, 이제 보니 저렇게 큰집이 지면과 분리되어 물 위에 뜰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입니다.

#### 무드셀라가 천 살을 넘겼으면 그 당시에 영생의 시대가 열릴 수 있었다

이에 마귀는 분개하여 969세의 무드셀라를 죽이게 되는데, 이로써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천 살 이상 생존케 하여 사망권세를 잡은 마귀 세상을 뒤엎어 영생하는 세상으로 만들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죽자 산중턱에서 일하던 인부들이 장례식에 참석하고자 내려갔습니다. 노아도 할아버지 무드셀라의 장례식에 참석하고자 산에서 내려가고자 했지만, 마귀의 권세를 간파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명하기를, "너와 너의 아내 그리고 너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 이렇게 여덟 식구는 방주를 떠나지 말고 방주를 지켜라!"라고 하였습니다.

무드셀라의 장례가 치르는 동안 하늘에서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가 오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에 의한 대홍수의 전조현상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마치 무드셀라의 죽음을 예성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눈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 슬퍼하였습니다.\*

박태선 기자

### 머리맡에 두면 참 좋은 책

라준경의 '인생이야기' 휴식 같은 시

현대인은 바쁘다. 쉴 새 없이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러다 지쳐 쓰러져 잠이 든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사이 그들의 영혼은 어디에 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면 그는 죽은 사람이나 다를없다.

이제 종살 때가 장소가 필요하다. 그대의 혼신과 영혼이 잠시 쉴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

저자는 애도하는 시들 중에서 한 부분을 뽑아내 자신의 감성을 녹여 일상사에 접목하여 글을 썼다. 저자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독자들의 지친 영혼에 한줌의 시원한 바람이 될 것이다. 잠들 무렵 그대 옆에 이 한 권의 책을 놓아두라. 그러면 그대는 저자가 말한 쉼 곳으로 인도되리라.

도서출판 해인

지은이 \_ 라준경

경북 대구 출생 (1970)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회복지학 수료  
현) 대구 승리재단 승사  
국제 신인류 문화학회 임원

라준경 지음/ 값 10,800원